서머퀸 경쟁 뒤엔…믿고 듣는 작곡가 있다

마마무, 연속히트 김도훈과 손잡고 '너나 해' 출사표
에이핑크, 블랙아이드필승 '1도없어'로 정상 차지
여자친구, '서머퀸 씨스타' 키운 이단옆차기와 협업

앞다투어 컴백한 걸그룹 간 순위 경쟁이 이 여름 태양만큼 뜨겁다. 23일 오전 11시 기준 가온차트를 보면 트와이스, 블랙핑크, 에이핑크, 마마무, 여자친구, 모모랜드 등 현 가요계를 대표하는 걸그룹들이 톱20 안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 여름 휴가 분위기에 맞는 '시즌송'으로 가요 시장을 선점하려는 걸그룹들이 약속이나 한 듯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걸그룹 간 경쟁은 내로라하는 작곡가들의 대리전이라 할 수 있다. 발표하는 노래마다 음원 차트를 점령하며 '억' 소리 나는 음원 매출을 올리는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부르는 각 걸그룹을 전면에 내세워 자존심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블랙핑크와 마마무, 모모랜드는 익숙함으로 승부를 걸었다. 블랙핑크의 신곡 '뚜두뚜두'는 데뷔 때부터 블랙핑크의 히트곡 '불장난' '휘파람' 등을 만든 YG엔터테인먼트 전속 작곡가인 테디가 작사·곡을 맡았다.

힙합 장르를 앞세운 블랙핑크 특유의 이미지를 잘 구현했다는 평이다.

마마무 역시 그들의 소속사를 이끄는 김도훈 작곡가가 만든 '너나 해'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들의 히트곡 '음오아예' '넌 is 뭔들' '데칼코마니' 등 기존 발표한 7곡을 연이어 히트시킨 김도훈과 마마무의 찰떡궁합이 이번에도 통했다.

올해 걸그룹 대전에 뛰어든 막내인 모모랜드는 그들을 스타덤에 올린 곡 '뿜뿜'을 만든 신사동호랭이와 다시 손잡고 신곡 '배앰'으로 승부를 걸었다.

또한 모모랜드는 조회 수 2억 뷰를 돌파한 '뿜뿜'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김종완 감독을 통해 그들의 생동감과 발랄함을 강조한 또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내놓는 데 성공했다.

에이핑크는 블랙아이드필승이 만든 곡 '1도 없어'로 음원 차트 정상을 밟았다.

2016년 '내가 설렐 수 있게'로 한 차례 호흡을 맞춘 이후 2년 만의 재회가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블랙아이드필승은 트와이스의 초창기 곡인 '우아하게' '치어 업' 'TT' '라이키' 등을 만들며 그들을 스타덤에 올린 작곡가. 트와이스는 이번에는 신인 작곡가 여럿이 의기투합해 만든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로 승부수를 띄웠다.

4년 연속 여름 시즌송을 발표하고 있는 여자친구 역시 변화를 시도했다.

그동안 호흡을 맞췄던 작곡팀 이기·용배 대신 이단옆차기를 새 짝으로 맞았다. 이단옆차기는 대표적 서머퀸이었던 씨스타의 '쉐이크 잇' '기브 잇 투 미' '러빙 유'를 비롯해 걸스데이의 '달링' '썸씽' 등을 만든 작곡가 팀이다.

결과적으로 각 걸그룹들은 신곡 발표 직후 바통을 이어받듯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며 명불허전의 인기를 증명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걸그룹의 인지도 만으로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 결국 좋은 신곡이 있어야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유명 작곡가들도 보다 음원 파워가 강한 걸그룹의 신곡을 책임지며 영향력을 과시한다"며 "이 때문에 각 연예기획사와 작곡가들이 평소에도 긴밀히 협조하며 각 시즌에 맞는 신곡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식샤를합시다 3' 본연의 재미 되찾았다

주춤했던 '식샤를합시다'가 시리즈 본연의 재미를 되찾고 있다.

지난 16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월화드라마 '식샤를합시다 3 : 비긴즈'(임수미 극본, 최규식 정형건 연출, 이하 식샤3)는 지난 시즌들에 비해 줄어든 재미와 등장인물들 간의 케미로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던 바 있다. 여기에 '식샤3'의 발목을 잡은 장면인 백수지(서현진) 사망 장면까지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전 시즌 주인공인 백수지를 죽인 것도 모자라 차창 밖으로 튀어나오는 잔인한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는 점 등이 시청자들에게는 반감 포인트가 됐다.

이 때문인지 새 시즌의 주인공인 이지우(백진희)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 선우선(안우연)과 이서연(이주우)도 마찬가지. '식샤' 시리즈는 매 시즌마다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캐릭터들의 향연으로 호평을 받았던 바 있지만, 시즌3에서는 어딘가 우울한 분위기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스토리라인, 그리고 '식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먹방과 '식샤'님의 '썰(說)'이 제대로 등장하지 못한다는 평을 받으며 시청률의 하락세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방송으로 '식샤3'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모양새다. 무기력증을 겪고 있던 주인공 구대영(윤두준)이 푸드크리에이터라는 새 직업을 추가하며 자신감을 되찾았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맛집을 소개하고 전복을 나눠먹는 모습이 그려지며 웃음을 더했다. 특히 먹는 것 앞에서 넘치는 자신감을 과시했던 식샤님 답게 전복을 맛있게 먹는 '썰'을 제대로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도 '식샤' 시리즈 본연의 재미를 되찾아줬다.

구대영의 '썰'이 찾아준 재미에 이지우의 과거 이야기가 섞이며 '식샤'는 더 볼만해졌다. 과거 이지우의 과외 학생이던 선우선이 사실은 이지우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삼각관계에 불을 붙였고, 여기에 선우선이 알고보니 구대영과 3인방 김진석(병헌), 배병삼(김동영), 그리고 이성주(서벽준)에게 성인물을 팔았던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웃음을 더했다. 이지우와 술을 마시다 만취하고는 구대영의 집에서 자고 일어나 깜짝 놀라는 모습이 담긴 것도 '식샤3'의 색다른 재미 포인트가 됐다.

'식샤' 본연의 재미는 조금씩 스며드는 러브라인과 식샤님 구대영이 펼치는 먹방과 '썰'이다. 본연의 재미를 되찾아가고 있는 '식샤3'의 시청률은 이에 힘입어 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평균 2.7%, 최고 3.2%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아내의 맛', '동상이몽2'와 다른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이 순항 중이다. 첫 방송부터 시청률 3%대를 넘어서며 높은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다. 부부의 일상을 보여 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 함소원은 호감 이미지로 올라섰고 여에스더·홍혜걸 부부는 웃음 제조기로 자리매김했다.

SBS에서 TV조선으로 이적한 서혜진 제작국장은 활발한 제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달 신규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9월엔 토크쇼로 시청자와 만난다. '아내의 맛' 성공에 안주할 순 없는 상황. 새로운 도전을 잇따라 시도하며 제작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내의 맛'은 지난 6월 5일 첫 방송됐다. SBS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과 비교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부부의 리얼한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 과정이 비슷했고, 이를 MC들이 지켜보며 대화하는 모습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

이와 관련, 서 국장은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운을 떼면서 "채널의 주 시청층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면서 여자 30대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30대 여성들의 관심을 끌 만한 커플 캐스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유사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야 했다. 서 국장은 '인생의 맛'에 집중했다. "부부가 살면서 같이 식사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살림하는 남자들' '동상이몽2' '백년손님' 등 부부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 담고 있는 가족의 범주가 조금씩 다르다. '아내의 맛'은 부부 리얼리티로 시작했지만 요리 쪽으로 많이 옮겨 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을 전혀 할 줄 모르던 여에스더·홍혜걸 부부는 자연으로 돌아가 직접 식재료를 채취하고 요리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준호·이하정 부부는 부모의 손맛을 배우는 효도의 맛, 함소원·진화 부부는 한중 부부의 특성상 결혼 스토리를 밑바탕으로 해 자기네 맛을 찾아가는 루트를 담아낼 예정이다.

'동상이몽2'에서 추자현·우효광이 한중 커플을 대표했다면, '아내의 맛'에는 18세 연하 중국인 남편 진화와 결혼한 함소원이 있다. "'동상이몽2' 출연자 섭외 당시 정말 보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 전혀 정보가 없는 사람 위주로 섭외하려고 했다. 그래서 추자현 부부를 섭외하려 했던 것이다. 함소원은 워낙 센세이션하지 않았나. 우리나라 연예인 중 그 정도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구나 외국 사람과 결혼했고 연령대도 너무 달라 다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댁의 거센 반대를 이겨낸 함소원·진화 부부에겐 이 프로그램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40대에 결혼해서 남들보다 고민이 많았는데 (함소원이) 임신해서 너무 기뻤다. 임신하고 그간 결혼을 반대했던 시댁 식구들과 만나고 잘된 것 같다. 시아버지는 다음 주 제주에서 직접 만난다. 임신도 하고 시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 참 다행이다"며 웃었다.

BTS, 또 다시 BTS를 넘어서다

자신이 세운 기록을 스스로 깨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방탄소년단의 신기록이 끝이 없다.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는 국내 선주문 151만 장을 돌파했고,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 9주째 차트인 중이다.

25일 방탄소년단의 앨범 유통을 맡고 있는 아이리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LOVE YOURSELF 結 'Answer'의 예약 판매를 실시해 국내에서만 총 151만 1910장의 선주문량을 기록했다.

이는 방탄소년단 자체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리패키지 앨범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발매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의 선주문량을 넘어섰다. 이번 앨범의 선주문량은 국내 음반 도·소매상으로부터 일주일간 주문을 받은 물량만을 집계한 수치다.

방탄소년단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최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Amazon)을 통해서도 해외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예약 판매 첫날 CDs & Vinyl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후 7일째인 현재까지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빌보드 성적도 신기록이다. 9주 연속으로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 이름을 올린 것. 24일(미국 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49위를 기록했다.

또한, LOVE YOURSELF 轉 'Tear'는 '월드 앨범' 1위, '인디펜던트 앨범' 5위, '톱 앨범 세일즈' 12위, '캐나디안 앨범' 45위를 각각 차지했다. 타이틀곡 'FAKE LOVE'는 '메인스트림 톱 40' 39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에서 84번째 1위를 달성했으며, '아티스트 100'에서 7위를 기록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음력 6월 14일)

▶쥐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ㅈ, ㅍ, ㅎ 성씨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중하라.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7, 10, 12월생 자동차 운송업, 중개업 종사자는 가정에 좋은 일이 있다.

▶소띠 6, 8, 10월생은 설계를 하지 않은 채 시공부터 하는 격이다. 우선순위를 알고 분명한 선택을 하라. ㄷ, ㅍ, ㅎ 성씨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친절하면 가정 파탄을 부를 수 있다.

▶호랑이띠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이 되는 법이다.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면 투철한 개인 질서가 필요하다. 1, 5, 11월생 내 뜻대로만 하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ㄱ, ㅈ, ㅂ 성씨는 내 주장만 하다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쉽다. 투기는 금물이다.

▶토끼띠 ㄴ, ㅅ, ㅍ 성씨는 운수대통한다. 소망도 이뤄지고, 서남쪽에서 귀인도 따르니 하는 일은 막힘 없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마음도 흡족하고, 매사 즐겁다. 그렇다고 자만하면 울상을 짓게 된다.

▶용띠 초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하나 결실하지 못한다. 지나치게 이권에 개입하면 다툼이 우려되고 우정에 금이 간다. 2, 7, 11월생은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라. 서북쪽에 ㄱ, ㅂ, ㅇ 성씨가 있으면 문안 인사라도 하라.

▶뱀띠 진지함이 요구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 탓이요"라는 자기 위안적인 구호가 대신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라.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3, 4, 8월생 ㅇ, ㅈ, ㅂ 성씨는 가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

▶말띠 좋은 소식이 올 것을 알리듯 아침부터 까치가 우는구나. 윗사람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듣고, 지침으로 삼으라. 행운의 문이 열린다. 과욕만 부리지 않으면 기분 좋은 날이 지속한다. 2, 3, 5월생은 검은색을 피하고, 파란색을 택하라.

▶양띠 1, 7, 11월생은 남에게 도움만 주지 내게는 득이 없다. 그러나 봉사의 보답은 가족에게 돌아간다. 오늘만큼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취소하는 배짱을 부려 보라. ㅂ, ㅅ, ㅊ 성씨길 조심하라. 잡념을 버리자. 차라리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낫다.

▶원숭이띠 기다림은 행복의 시작이다. ㄱ, ㅈ, ㅇ 성씨는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자신을 탓하지 말라. 미래를 위해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1, 7, 9월생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타향에 있으나 서둘지 말고 느긋한 자세로 기다리면 돌아온다.

▶닭띠 어수선한 주변을 정리하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 ㄴ, ㅍ, ㅎ 성씨는 물도, 기름도 아니니 되는 일이 없구나. 허둥대지 말고 노력하며 인내하라. 2, 11, 12월생 매매 계약이 성사할 수 있는 날이다.

▶개띠 근신하라. 부부간 언행 불손으로 하는 일까지 영향을 미칠 듯하니 3, 5, 9월생 자중해야 한다. 부부간 화목은 가정 평화와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ㄱ, ㅊ, ㅇ 성씨 사업이 흔들려 마음이 불안하나 곧 햇살이 보인다.

▶돼지띠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니 마음이 상쾌하다. 묵은 둥지를 떠나 새롭게 시작한 오늘의 삶이 당당하니 가족에게 고마워하라. 2, 7, 8월생 모든 일에 자신감 있게 대처하되 추진력만 보강되면 미래지향적일 듯하다. ㄷ, ㅊ, ㅎ 성씨 미혼자 애정은 봄바람이 부는 격이다.